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2

▶ 43회 예고
제관 라다굽따는 아쇼까의 동생 비가따쇼까 생일잔치에 참석해서 예전 같지 않은 빈두사라왕의 모습을 보고는 걱정한다. 그날밤 수상인 칼라따까 저택으로 찾아가 빈두사라왕 후임으로 아쇼까를 추대하기로 서로 합의한다.



담마팔, 꾸날라의 스승이 되다

빈두사라왕은 친위대장을 불러 별궁 접견실을 환하게 단장하라고 지시했다. 아반띠국에서 초빙한 담마팔 사문을 약재 냄새 나는 침소에서 맞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빈두사라왕은 자신의 건강이 별궁 접견실에서 집무를 보아도 될 만큼 좋아졌다고 자신했다.

"대왕님,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대장은 지금 어서 접견실을 단장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친위대장은 정원을 담당하는 관리를 부르고, 궁녀들을 불러 접견실을 가능한 한 밝게 꾸미도록 지시했다. 궁녀들이 접견실 커튼을 산뜻한 빛깔의 비단 천으로 바꾸었다. 몇몇 잡인들은 묵은 집기들을 들어내고 바닥에 대걸레질을 했다. 또한, 별궁정원 하인들은 서너 사람이 들 수 있는 큰 화분들을 접견실로 옮겨왔다. 붉은 부겐빌리아 꽃, 하얀 플루메리아 꽃 화분 등이 접견실 창가에 놓였다. 플루메리아 꽃향기가 진동했다. 먼지가 부옇게 쌓였던 별궁 접견실이 오랜 만에 생기로 충만했다. 친위대장은 오래 된 탁자와 의자 등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궁중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전단향나무 집기들이 새로 들어왔다. 이른 아침에 시작한 작업은 점심때를 조금 지나서 끝났다. 친위대장이 빈두사라왕에게 보고했다.

"대왕님, 접견실 단장을 마쳤습니다."

"잘했소. 잠시 후 라다굽따 제관이 담마팔 사문을 안내해 올 것이오."

빈두사라왕은 담마팔 사문을 기다렸다. 왕자들의 스승을 삼고자 초대한 것이 명분이었지만 어제부터 빈두사라왕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었다. 담마팔 사문이 전생과 금생, 내생을 꿰뚫어보는 천안통이 있다는 것을 라다굽따에게 듣고는 자신이 천수를 누리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병이 깊어져 변고를 당할지 궁금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은 친위대장을 대동하고 별궁 접견실로 나갔다. 빈두사라왕의 얼굴에 흡족한 표정이 번졌다. 칙칙했던 접견실이 확 바뀌어 있었다. 빈두사라왕은 플루메리아 꽃이 만개한 화분들을 보고서는 침소의 우울한 기분을 단박에 씻어버렸다.

때마침 담마팔 사문이 별궁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접견실로 올라왔다. 친위대장이 즉시 일어나 담마팔 사문을 안내하러 나갔다. 담마팔 사문은 라다굽따 대신을 뒤따라오고 있었다. 친위대장이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대왕님은 지금 별궁 접견실에 계십니다."

"건강은 어떠하시오?"

"많이 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라다굽따와 담마팔 사문이 접견실로 들어서자 빈두사라왕이 일어나서 맞이했다.

"대왕님, 어제 말씀드렸던 아반띠국에서 오신 담마팔 사문입니다."

"오, 사문을 기다렸소."

라다굽따의 소개를 받은 담마팔 사문이 합장하며 말했다.

"소승이 왕자님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무슨 말씀이오. 사문께서는 전생과 금생, 내생을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있다고 들었소."

"대왕이시여, 소승과 같은 사문은 많습니다."

"아니오. 나는 덕이 높은 사문을 많이 만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소. 일찍이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이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었으나 그는 얼마 후 떠나버렸소."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이 만족해하자 안도했다. 궁녀들이 코코넛 음료수를 황금잔에 들고 왔다. 담마팔 사문을 위한 배려였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내가 사문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소."

"대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나는 1년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소. 최근에 좀 나아졌지만 또 언제 재발될지 걱정이오. 과연 나는 천수를 누릴 수 있겠소, 없겠소?"

"소승은 대왕님을 뵌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승이 대왕님의 천수를 어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담마팔 사문은 갑자기 자신의 천수를 묻는 빈두사라왕의 질문에 당황하여 둘러댔다. 그러자 빈두사라왕이 담마팔 사문을 뚫어지듯 쳐다보더니 말했다.

"천수란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오? 그러니 사문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사문의 허물이 아니오."

라다굽따도 빈두사라왕을 거들었다.

"대왕님의 말씀인즉 고비가 있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신 것 같소."

"라다굽따 제관의 말이 맞소. 지혜롭게 고비를 대처한다면 피할 수도 있지 않겠소. 지금까지는 궁중의원들이 힘을 써 여기까지 온 것 같으나 사람의 정성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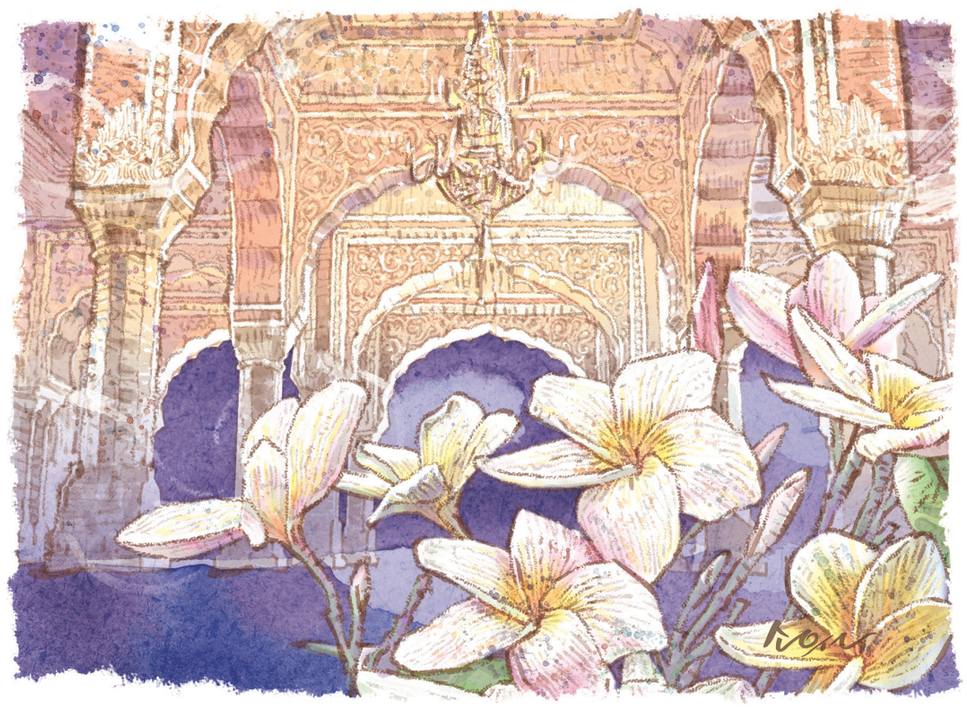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명의라고 하더라도 하늘이 막으면 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할 수 있듯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마팔 사문은 빈두사라왕이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정복전쟁을 하면서 칼에 피를 묻히곤 했던 악행의 응보라고 생각했다. 응보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만 씻어지는 법이었다. 빈두사라왕이 작년부터 병고에 시달리는 것은 응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담마팔 사문이 말했다.

"대왕이시여, 더 이상의 병고는 없습니다. 다만 10년 뒤에 한 번의 큰 고비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치러야 할 변고라면 받아들이시는 것이 불법입니다."

빈두사라왕이 담마팔 사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당장 더 이상의 병고가 없다는 말에 두 팔을 벌리며 큰소리로 말했다.

"사문이여, 고맙소. 나는 당장 궁궐로 돌아갈 것이오. 마우리아왕국의 영광을 위해 예전처럼 다시 힘쓸 것이오. 앞으로 10년을 다진다면 100년의 평화가 있지 않겠소? 사문에게는 왕자를 정할 특권을 주겠소. 원하는 왕자의 스승이 되시오."



빈두사라왕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기를 두 번이나 반복했다. 라다굽따가 눈치를 채고 일어났다.

"대왕이시여, 소신은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궁궐에서 대신회의를 하겠소. 일찍 나오시오."

라다굽따는 접견실을 나와 도리질을 했다. 담마팔 사문과 별궁 정원을 가로지르며 조금 전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큰 사건을 목격한 것 같은 충격에 휩싸여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다. 강가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라다굽따의 목덜미를 스쳤다. 라다굽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사문이시여, 대왕님의 10년 뒤 큰 고비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변고를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담마팔 사문은 입을 다물었다. 큰 고비란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문제였지만 차마 그 말은 꺼낼 수는 없었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대왕님은 앞으로의 10년에 안도하시지만 나는 대왕님의 10년 후가 불안합니다."

"라다굽따시여, 10년 후는 10년 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소승에게 지금의 문제는 어느 왕자님을 가르칠 것인가, 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아쇼까 부왕님의 어머니 다르마 왕비를 뵈러 가야 합니다. 아쇼까 부왕님께서 사문과 함께 다르마 왕비를 찾아뵈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왕님의 어머니라면 소승도 뵙고 싶습니다."

라다굽따는 내성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갔고, 담마팔 사문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절로 돌아갔다. 강가강의 갈매기 몇 마리가 내성 안까지 날아왔다가는 싱겁게 사라졌다. 조그만 절 앞 삡빨라나무 그늘에는 어제와 같이 수행자 몇 사람이 좌선하고 있었다. 수행자들은 삡빨라나무 가지에 앉아 우짖는 작은 새들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음날. 라다굽따와 담마팔 사문은 다르마 왕비 별궁을 찾았다. 다르마 왕비는 담마팔 사문에게 비밀스런 이야기라도 들으려는 듯이 아상디밋따와 락슈미띳사를 접견실로 부르지 않았다. 이윽고 다르마 왕비는 담마팔 사문을 보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왕비님, 담마팔 사문입니다."

"오, 너무 닮았어요.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이 걸어오신 줄 알았어요."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은 한때 아쇼까 부왕님의 스승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어린 아쇼까의 스승이었지요. 참으로 자애로운 분이었지요. 사문이 빠딸리뿌뜨라를 떠날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 같은 사문이 내 앞에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담마팔 사문이 다르마 왕비에게 다시 한 번 합장한 뒤 말했다.

"왕비님이시여, 희유한 일입니다."

"오, 목소리도 같아요."

담마팔 사문은 다르마 왕비의 말을 믿었다. 아쇼까 부왕을 만났을 때도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이다. 아쇼까 부왕이 자신의 어린 시절 스승 목갈리뿟다띳사 사문과 닮았다고 호감을 보이면서 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다르마 왕비가 아상디밋따를 불러 꾸날라를 데리고 오게 했다. 그리고 락슈미띳사에게는 갓난아기인 비가따쇼까를 안고 오라고 했다. 다르마 왕비가 꾸날라와 비가따쇼까를 오게 한 것은 담마팔 사문에게 스승이 돼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아쇼까 부왕의 동생인 비가따쇼까는 아직 강보에 싸인 갓난아기였다. 비가따쇼까는 잠을 자는지 쌕쌕 숨소리를 냈다. 다르마 왕비가 꾸날라에게 말했다.

"꾸날라야, 우리를 위해 먼 나라에서 오신 사문이시다. 인사 드려라."

"할머니, 이분이 저에게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쳐 줄 분이세요?"

"그건 모르지. 대왕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니까."

"제가 대왕님께 허락을 맡아오겠어요. 이분이라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다굽따가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왕님께서는 담마팔 사문께 왕자님이든 왕손님이든 선택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르마 왕비와 아상디밋따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부탁했다.

"꾸날라의 스승이 돼주세요."

담마팔 사문이 두 손을 이마까지 올려 합장했다. 꾸날라 스승이 되겠다는 허락의 합장이었다. 라다굽따가 담마팔 사문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은 아쇼까 부왕님의 스승이었고,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을 닮은 담마팔 사문께서는 꾸날라 왕손님의 스승이 된다고 하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순리라기보다는 인연이겠지요."

담마팔 사문은 '인연'이라는 말로 다르마 왕비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다르마 왕비 별궁 접견실에 모처럼 웃음이 오갔다. 분위기가 내내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라다굽따는 담마팔 사문이 빈두사라왕에게 한 말이 문득 떠올라 웃을 수만은 없었다. 라다굽따는 다르마 왕비와 헤어지면서 중얼거렸다.

'10년 후 빈두사라 대왕님께 큰 변고가 생긴다면 아쇼까 부왕님이 달려와서 수습하셔야 하지 않을까.'

라다굽따는 아쇼까 부왕이 탁실라와 웃자인의 반란을 후유증 없이 진압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하늘에 기도하고 제사를 주관한 궁중제관으로서의 본능적인 판단이었다. 비록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칼라따까도 전적으로 동의할 터였다. 칼라따까는 빈두사라왕이 총애하는 수시마를 저주했기 때문이었다. 어린 수시마에게 뺨을 맞은 수모를 친한 대신들에게 두고두고 토로해 왔던 것이다.〈계속〉

군/계/일/학 ... 한국법당 들의 마이크를 20여 년 살펴본 결과 ...

1. 시주마이크 2. 업자들의 시설마이크 3. 스님 직접 구한 낙원동마이크 들로 성능들이 도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들 합니다. 이때! 본사의 **군계일학** 마이크로 스님께서 염불을 해보시는 순간 ! 구성지고 신명나는 소리에 살짝 놀라시며 자신의 염불에 취해 한참을 염불을 길게 하십니다. 이때! 총무실, 공양간 보살들이 스님 염불소리 같은데? 아니! 테프소리 같은데? 하며 확인 차 법당으로 몰려 옵니다. 이때! 염불을 마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허어!.. **군계일학** 이 따로 없군...의 말씀따라 **군계일학** 마이크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구매하지 않고 오직!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불렀을 때 그 동네 사찰 여럿을 모아 방문시 오직! 소리만 확인 해드린 후 바람같이 사라짐으로 부담이 전혀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군계일학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漢文·한글(겸용) 종합의식집

성묵스님의 漢文/한글(겸용)종합의식집 한권으로 7가지의 염불을 할수있는 ⑨권과 ⑨-1번, ⑨-2번으로 분류하여 선택할수 있도록 두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십구재 입재 → 사십구재 → 일반 천도재 → 생축불공 → 한문염불 → 한글염불 → 경전공부까지 해결됩니다.



신권소개 ⑨번, ⑨-1번, ⑨-2번
⑨ 漢文/한글(겸용) 종합의식집 (50,000원)
⑨-1 漢文/한글(겸용) 의식집 (25,000원)
⑨-2 漢文/한글(겸용) 의식집 (25,000원)
☜ 한권의 경전으로

성묵스님의 스테디셀러 소개 (스프링 제본)

① 漢文/한글(겸용) 예경/각청 (20,000원)
② 漢文/한글(겸용) 천도/시식 (20,000원)
③ 漢文/한글(겸용) 수계/방생 (20,000원)
④ 漢文/한글(겸용) 장 의 (20,000원)
⑤ 漢文 점 안 (20,000원)
⑥ 漢文/한글(겸용) 독 송 집 (20,000원)
⑦ 漢文/한글(겸용) 토속 모음 (20,000원)
⑧ 漢文/한글(겸용) 지 장 경 (20,000원)

구 입 처 총무보살 010-7144-7339 · 성묵스님 010-5277-8024
계좌번호 농협 735091-52-058288 (예금주 : 박명덕)